2012. 10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역대하 · 마가복음 · 누가복음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믿음의 승리

Contents

8 **매일성경묵상** 역대하 20장 ~ 역대하 25장

16 **1과** 고난을 통한 요셉의 승리

24 **매일성경묵상** 역대하 26장 ~ 역대하 31장

32 **2과** 값비싼 책을 태우며

40 **매일성경묵상** 역대하 32장 ~ 역대하 36장
마가복음 13장

48 **3과** 세상은 사탄을 어떻게 보는가

56 **매일성경묵상** 마가복음 14장 ~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장 ~ 누가복음 3장

64 **4과** 앞으로 나아가라

72 **매일성경묵상** 누가복음 4장 ~ 누가복음 6장

76 **부록** 제44대 장로 피택자 주제 발표

『증현의 만나』는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를 돕기 위해 증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10 October 2012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역대하 20장	2 역대하 21장	3 역대하 22장
7	8 역대하 26장	9 역대하 27장	10 역대하 28장
14	15 역대하 32장	16 역대하 33장	17 역대하 34장
21	22 마가복음 14장	23 마가복음 15장	24 마가복음 16장 임직예배
28 종교개혁주일 제5차 학습세례식	29 누가복음 4장	30 누가복음 5장	31 누가복음 6장

November 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 역대하 23장	5 역대하 24장	6 역대하 25장
11 역대하 29장	12 역대하 30장	13 역대하 31장
18 역대하 35장	19 역대하 36장 장로 피택자 주제 발표	20 마가복음 13장
25 누가복음 1장	26 누가복음 2장 제3차 청지기훈련 제4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	27 누가복음 3장

교회 주요 일정

10월 19일
장로 피택자 주제 발표

10월 24일
임직예배

10월 25일~27일
제4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

10월 26일
제3차 청지기훈련

10월 28일
종교개혁주일
제5차 학습세례식

나의 주요 일정

기 · 도 · 제 · 목

1. 2012년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6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2.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후임당회장이 청빙되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소서.

4.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5.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6.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7.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8.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10월 25일~27일)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9.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10.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권·두·언

믿음의 승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고난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바울은 숱한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믿음의 깃발을 보고 사탄은 도망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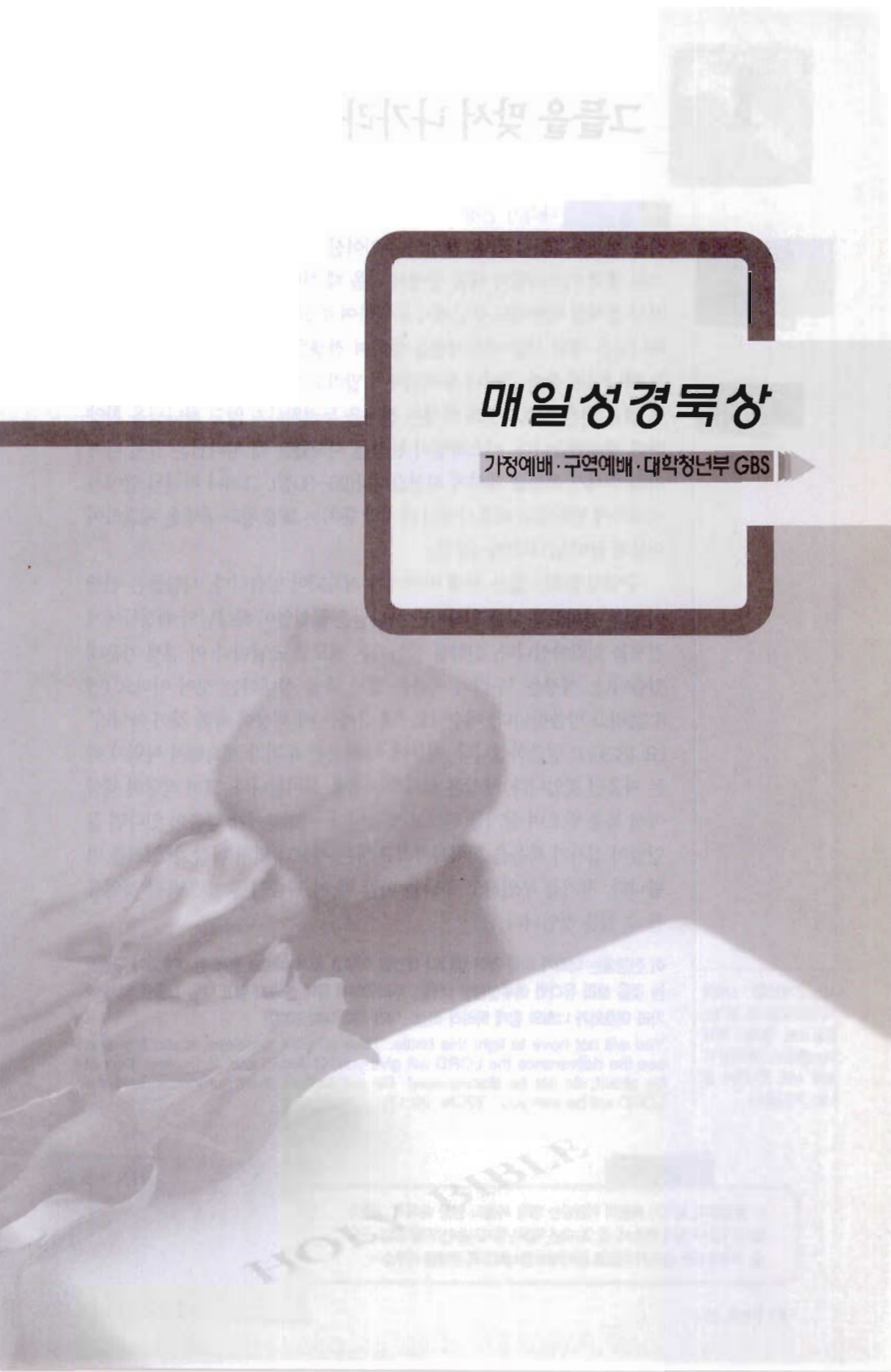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승리자에게는 놀라운 영광과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2012년 10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성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1 월요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역대하 20장
찬송가 358장

묵상노트

여호사밧은 나라가 곤경에 처하자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1~4절)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5~7절). 그는 옛적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을 멸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8~13절).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전쟁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14~19절). 이에 힘을 얻은 여호사밧과 백성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찬양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앞서 나가 싸워 주셔서 적군을 패하게 하셨습니다(20~30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여호사밧의 마지막 통치는 북방 왕과 동맹을 체결하여 어둡게 끝이 납니다(31~37절).

구약성경에는 많은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날마다 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엡 6:12)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리"(요 18:36)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저 적당히 세상에서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끊임없이 십자가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세상과 맞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이 싸움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대하 20:17)

You will not have to fight this battle. Take up your positions; stand firm and see the deliverance the LORD will give you, O Judah and Jerusalem.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Go out to face them tomorrow, and the LORD will be with you.' "(2Chr. 20:17)

• 시스 고개(16절) : 사해에서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통로로서, 벤게디 북쪽 11km쯤에서 시작되어 드고아 서쪽 오지에서 끝나는 고갯길이다.

기도제목

① 끊임없이 십자가 복음이 위협받는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서 그들과 맞서 나갈 수 있게 하소서. ② 2012년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6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예수와 더불어 세운 언약

2 화요일

역대하 21장
찬송가 546장

묵상노트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1절). 여호람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형제들을 죽이고,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왕권이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나라(에돔과 립나)에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2~10절). 선지자 엘리야는 여호람에게 아버지 여호사밧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고 유다에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을 미혹한 죄를 지적한 후, 여호와께서 여호람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 아내들에 이르기까지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엄히 경고합니다(11~15절). 여호와께서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을 이용하여 유다를 침략하게 하심으로 왕궁의 모든 재물과 백성들,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탈취하게 하셨으며(16~17절), 또한 여호람의 창자에 병이 들게 하사 여호람은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18~20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7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듯이 유다 나라도 같이 망해야 마땅한데,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늘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언약 때문이며, 예수 때문임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대하 21:7)

Nevertheless, because of the covenant the LORD had made with David, the LORD was not willing to destroy the house of David. He had promised to maintain a lamp for him and his descendants forever.(2Chr. 21:7)

• 이스라엘 왕들의 길(6절) : 하나님께 패역하고 그의 왕국에 대적한 비교 세력을 통칭하는 말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수요일 왕국의 씨

역대하 22장
찬송가 286장

묵상노트

여호람의 막내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비참한 말로를 보았으면서도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합니다(1~4절). 아하시야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을 대적하여 싸웁니다. 이때 요람이 상처를 입고 이스르엘로 돌아옵니다(5~6절). 아하시야는 요람에게 병문안을 가는 중에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만납니다(7~8절). 아하시야는 도망하여 사마리아에 숨었으나 결국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9절).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신이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제사장의 아내이자 아달랴의 딸인 여호사브앗에 의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생명을 건집니다(10~12절).

아달랴는 세상의 권세를 잡기 위해 다윗의 왕가 즉, 메시아의 고리를 끊어 버리려고 모든 왕자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의 딸인 여호사브앗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침실에 숨겨 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헤롯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시절 애굽으로 피신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왕국의 씨인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끊임없는 집념은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탄의 승리로 보였던 이 사건으로 인해 놀랍게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처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 아합의 집의 가르침(5절) : '가르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모사꾼들' 또는 '정치 장략가들'을 가리킨다. 즉 북왕국의 아합 왕가에 파견된 참모진들을 말한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대하 22:10)

When Athaliah the mother of Ahaziah saw that her son was dead, she proceeded to destroy the whole royal family of the house of Judah.(2Chr. 22:10)

기도제목

①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후임당회장이 청빙되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4 목요일

역대하 23장
찬송가 457장

묵상노트

아하시야 왕이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어린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칠 년이 되던 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개혁을 결의합니다(1~7절). 레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였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습니다(8~11절). 아달랴가 백성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벌어진 일들을 보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반역이라고 외쳤으나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계획대로 죽임을 당했으며 결국 아달랴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12~15절).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진멸한 일과 불법으로 왕권을 행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반역죄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통하여 아달랴를 축출한 것은 반역이 아니라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편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정당한 것이고, 내게 해가 되면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들이 자신의 법과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쌓은 선과 모든 공로를 그분의 다림줄로 다시 재어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나의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절대적인 평가 앞에 서야 합니다. 혹시 아달랴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기준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영생의 기쁨이 자기 부인 안에 있습니다.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라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대하 23:13)

She looked, and there was the king, standing by his pillar at the entrance. The officers and the trumpeters were beside the king, and all the people of the land were rejoicing and blowing trumpets, and singers with musical instruments were leading the praises. Then Athaliah tore her robes and shouted, "Treason! Treason!"(2Chr. 23:13)

• **말문(15절)** : 예루살렘 성전 남동쪽에 있는 문. 이곳은 왕실 전용으로 왕국의 말이 다니는 길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내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다림줄 앞에 겸손히 서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5 금요일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역대하 24장
찬송가 451장

묵상노트

요아스는 칠 세에 왕위에 올라 사십 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1~3절). 그는 아달랴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집이 부서지고, 훼파된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성전 문 밖에 한 궤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께 정한 세금을 드리자고 공포했습니다(4~9절). 백성들은 즐거이 세금을 내어 성전 보수뿐만 아니라 성전 기물들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10~14절).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삼십 세로 죽자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15~18절).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려 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19절).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버리셨다는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왕은 오히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20~22절). 1년 후 아람 군대에 의해 요아스는 부상하였고,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 그는 침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23~27절).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곧바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겨 버립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믿는 척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참 믿음은 때와 장소, 어떤 자리와 환경이나 상황에 전혀 관계없이 어디에 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가까이 가면 복음이 있는 척하지만, 교회와 멀어지면 복음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포장하며 세상의 신을 섬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세상에서 동일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만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이 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보수(4절)** :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다. 단순히 건물을 수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전다운 면모를 회복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대하 24:18)

They abandoned the temple of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and worshiped Asherah poles and idols. Because of their guilt, God's anger came upon Judah and Jerusalem.(2Chr. 24:18)

기도제목

① 모든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숫자의 싸움이 아닌 믿음의 싸움

6 토요일

역대하 25장
찬송가 543장

묵상노트

요아스의 뒤를 이어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은 죽였으나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녀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1~4절). 에돔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마샤는 은 백 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용사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용사, 곧 에브라임 자손을 기뻐하지 않음으로 돌려보낼 것을 아마샤에게 권면하십니다(5~9절). 아마샤는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10~13절).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아마샤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를 경고하였으나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14~1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의 전쟁을 통하여 유다를 벌하셨습니다(17~24절).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린 후, 예루살렘 무리는 그를 반역하여 죽였고, 그는 유다 성읍에 장사되었습니다(25~28절).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는 우선 자기 나라 군사 30만 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은 일백 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십만을 기용하여 40만의 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북쪽 나라 십만 명은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마샤 왕은 놀랍게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용병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숫자에 의지합니다. 교회를 염려하며 교인 수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믿는 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깨어지고 회개하는 심령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많이 왔느냐 적게 왔느냐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벌써 패배한 것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대하 25:9)
Amaziah asked the man of God, "But what about the hundred talents I paid for these Israelite troops?" The man of God replied, "The LORD can give you much more than that."(2Chr. 25:9)

• 라기스(27절) : 예루살렘 남서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의 고대 도시로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숫자에 관심을 갖기보다 복음으로 깨어지는 참된 회개에 관심을 갖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믿음의 삶

“마음 문을 열고”

세상이 점점 각박해 진다는 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벽을 더욱더 높이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는지요. 서로가 마음의 문을 걸어두고 벽만 높이 쌓아두고 있었기에 세상엔 아마도 불신과 싸움과 죄악들이 끊일 날이 없었을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죄악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내어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갇혀 있던 모든 족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총동원전도집회를 통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초대되어 오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며 주님의 품으로 오라고 애타게 부르시며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의 초대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응합시다! 주님의 자비하신 손을 꼭 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의심 없이 따라갑시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김소울(집사, 2교구)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7 주일

8 월요일 □ 역대하 26장

9 화요일 □ 역대하 27장

10 수요일 □ 역대하 28장

11 목요일 □ 역대하 29장

12 금요일 □ 역대하 30장

13 토요일 □ 역대하 31장

1

고난을 통한 요셉의 승리

Joseph's Triumph Over Trouble

| 초점 |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다

| 찬송 |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 본문 | 창세기 39:12~23

12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13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
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4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
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
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15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16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17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
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18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
나이다 19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
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
에 갇혔으나 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
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
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23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을 아주 많이 사랑했지만, 열 명의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너무도 싫어한 나머지 은 이십에 노예로 팔았습니다(창 37:28). 예수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유다에 의해서 은 삼십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리셨습니다(마 26:14~15).

※ 요셉과 예수님이 당한 일의 비슷한 점은 무엇입니까?

※ 내가 최근에 받은 시험은 무엇이며, 그것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마 4:4,7,10).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신앙고백, 유혹 당하심 그리고 승리하심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배척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형제들에게 거부당하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요셉이 자신의 가족 모두를 구원함으로 승리하였듯이 예수님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살펴봄으로, 그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으路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요셉의 고백

요셉의 신앙고백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창 39:1~4 _____

요셉은 하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요셉은 신실하게 섬겼으며, 이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면한 일꾼이었고,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하였듯 맡은 일도 꾸준히 감당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성실한 섬김은 그를 더욱 큰 기회로 이끌었습니다. 요셉은 은총을 입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골 3:23 _____

※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고백을 한 문장으로 써 보십시오.

_____

요셉이 당한 유혹

요셉이 당한 유혹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 창세기 39:6~10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십시오.

_____

_____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옵니다. 유혹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죄입니다. 유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듯이 유혹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 요셉과 같은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나누어 보십시오.

_____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근면히 행해야 하며, 유혹이 늘어나는 상황을 피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혼자서 이 유혹자와 함께 있지 않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악의 모든 모양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살전 5:22 _____

요셉의 승리

요셉의 승리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창 39:11~12 _____

_____

_____

요셉은 옷을 잃어버렸지만 자신의 품성까지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옷을 입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보다는 진리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진리는 공손함이나 관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죄로 가득하게 사느니 부끄러운 게 낫습니다. 확고부동한 진실함이 요셉에게는 성적인 밀애보다도 더욱 중요했습니다. 때때로 유혹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피하는 것입니다.

고전 6:18 _____

_____

진리를 억압할 때 불신앙과 사악함이 초래됩니다. 우리는 결코 죄와 진리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은 물론, 훼방꾼들도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모든 유혹에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만일 요셉이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그는 평생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진실함은 그를 죄수가 되게 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롬 1:24 _____

_____

고전 10:13 _____

_____

_____

요셉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종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그는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실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눈을 열어 요셉이 누린 영적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시험 속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창 39:20~23 _____

요 16:33 _____

| 믿음의 기도 |

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② 세상의 풍파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③ 충현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설교노트

※ 설교 중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8 월요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역대하 26장
찬송가 289장

묵상노트

아마샤의 아들 웃시야가 십육 세에 왕이 되어 오십이 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1~3절). 그는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4~5절). 웃시야는 블레셋을 물리쳤고, 암몬 사람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아내었습니다. 웃시야에 대한 소문은 애굽 변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6~8절). 웃시야는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방비하였고 군대와 무기를 준비하여 더욱 강성하여졌습니다(9~15절). 그러나 나라가 견고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스스로 분향하려 할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김으로 속히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16~20절). 웃시야는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어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21~23절).

웃시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선지자가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며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웃시야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16절).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다가도 일이 잘되면 마음이 싹 달라지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굳어져 교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거만해집니다. 반대로 물질이 없어지면 비굴해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물질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교만해질 틈이 있을 수 없습니다.

• **나병(19절)** : 부정의 개념과 관계되었던 매우 심한 만성 피부병의 하나이다.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치명적인 불치병이었다. 특히 하나님의 징계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대하 26:16)

But after Uzziah became powerful, his pride led to his downfall. He was unfaithful to the LORD his God, and entered the temple of the LORD to burn incense on the altar of incense.(2Chr. 26:16)

기도제목

① 언제나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

9
화요일

웃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리자 아버지를 대신하여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성전에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습니다(1~2절). 그는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많이 증축했으며,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암몬과 싸워 승리하는 등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습니다(3~6절). 그는 이십오 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을 다스렸으며 죽어 다윗 성에 장사되었습니다(7~9절).

역대하 27장
찬송가 314장

묵상노트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아버지 웃시야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나병에 걸려 죽자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안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걷기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바른 길은 윤리, 도덕적으로 바른 길일 뿐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단지 경건의 모양만 갖출 뿐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은 속이 썩어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 5:31~32). 바른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대하 27:6)
Jotham grew powerful because he walked steadfastly before the LORD his God.(2Chr. 27:6)

•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2절)** :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였다는 뜻이다. 우상 숭배의 위험성은 그 자체가 망령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혈악한 처지에 있게 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자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10 수요일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역대하 28장
찬송가 267장

묵상노트

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을 다스렸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을 지어 분향했습니다(1~4절). 이에 하나님은 그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주어 예루살렘이 크게 살육 당하게 하셨습니다(5~7절).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면서도 오뎃 선지자를 통해 유다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8~15절). 아하스는 위기 앞에서 더욱 하나님께 반역하며, 오히려 앗수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앗수르 왕은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공격하였습니다(16~21절). 아하스는 곤고할수록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제사하며 분향하였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22~27절).

8절을 보면 유다가 이스라엘에 패하여 노예로 팔려 가는 사람이 20만 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의기양양하여 노예들을 끌고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 나타나 승리에 도취되어 돌아오는 군대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10절)고 묻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범죄하고 남쪽 유다도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북쪽 나라는 가만히 두고 남쪽 나라만을 징벌의 대상으로 삼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쪽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심판도 없습니다. 주님의 간섭하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떠나 있어도 아무런 간섭도 없고 그냥 내버려두신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시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오늘도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25절)** : 하나님 왕국의 중보적 통치자로 세움 받은 아하스 왕의 악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은 거의 멸망하게 되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대하 28:10)

And now you intend to make the men and women of Judah and Jerusalem your slaves. But aren't you also guilty of sins against the LORD your God?(2Chr. 28:10)

기도제목

① 오늘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10월 25일~27일)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버리고 돌려 등지는 죄인

11
목요일

역대하 29장
찬송가 260장

묵상노트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에게서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1~2절). 그는 아하스의 우상숭배로 닫힌 성전 문을 열고 수리했으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 성전을 성결케 했습니다(3~5절). 히스기야는 유다가 받은 심판의 원인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소를 등지고 예배를 그쳤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6~11절). 때문에 그는 성전 안과 밖에 있는 모든 더러운 신상을 제거했습니다(12~19절). 히스기야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읍의 지도자들을 모아 성전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20~24절). 성전을 정화하고 속죄 제사를 드린 후, 온 회중과 함께 다윗의 악기들과 시와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25~30절). 히스기야는 회중에게 '마땅히' 나아와 하나님께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했고, 회중은 순종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예물을 드렸습니다(31~36절).

6절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마치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알아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어둠은 끊임없이 빛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빛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고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둠은 그들 스스로 죄악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증거해도 다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를 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성소를 등져 버립니다. 혹시 지금 악한 자의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발견했을 때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대하 29:6)

Our fathers were unfaithful; they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our God and forsook him. They turned their faces away from the LORD's dwelling place and turned their backs on him.(2Chr. 29:6)

• 첫째 해 첫째 달(3절) : 히스기야 통치 일 년(B.C. 715년)을 말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언제나 죄인인 나를 주님 앞에서 발견케 하시고 회개하며 빛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12 금요일

유월절을 지키라

역대하 30장
찬송가 91장

묵상노트

히스기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자고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초청했습니다(1~5절). 특히 보발꾼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간절히 외쳤습니다(6~9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발꾼들을 조롱했지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10~12절). 백성들은 유월절 의식에 앞서 예루살렘에 있던 거짓 신들의 제단들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우상숭배의 잔재들을 뿌리 뽑았습니다(13~17절). 히스기야는 성결의 규례를 어긴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18~20절). 온 회중이 솔로몬 이후 유례없는 큰 기쁨을 맛보았으며, 유월절은 칠 일이나 더 연장되었습니다(21~27절).

히스기야의 통치 사역 중에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29장에서 언급된 성전 정화와 제사 의식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일차적인 사역이었다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대부분의 왕들 사이에 몇몇 선한 왕들이 있어 정직하게 여호와의 길을 좇았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처럼 성전을 정화하고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유월절은 거부되어야 마땅한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구속의 절기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구원을 고대하는 약속의 절기이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어린 양을 통하여 보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대하 30:1)

Hezekiah sent word to all Israel and Judah and also wrote letters to Ephraim and Manasseh, inviting them to come to the temple of the LORD in Jerusalem and celebrate the Passover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2Chr. 30:1)

• **보발꾼(10절)** : 급한 공문을 걸어서 전해 주던 군인을 가리킨다.

기도제목

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나의 죽음을 보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13
토요일

역대하 31장
찬송가 312장

묵상노트

유월절 행사를 마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여러 성읍에 여전히 남아 있는 각종 우상의 형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의 제사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도록 명령합니다(1~4절).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소산의 첫 열매와 십일조를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5~10절).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예물이 많이 쌓인 것을 본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방들을 만들게 하고 책임자를 세워 예물을 관리하게 하며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직무를 맡아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게 합니다(11~19절). 히스기야는 솔로몬 이후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하기 위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마음을 다해 선한 정의와 진실함을 추구했습니다(20~21절).

히스기야와 온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유월절을 준비하여 지킴으로써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기쁨은 그들을 더욱 주님만을 향하게 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상과 목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21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대하 31:21)

In everything that he undertook in the service of God's temple and in obedience to the law and the commands, he sought his God and worked wholeheartedly. And so he prospered.(2Chr. 3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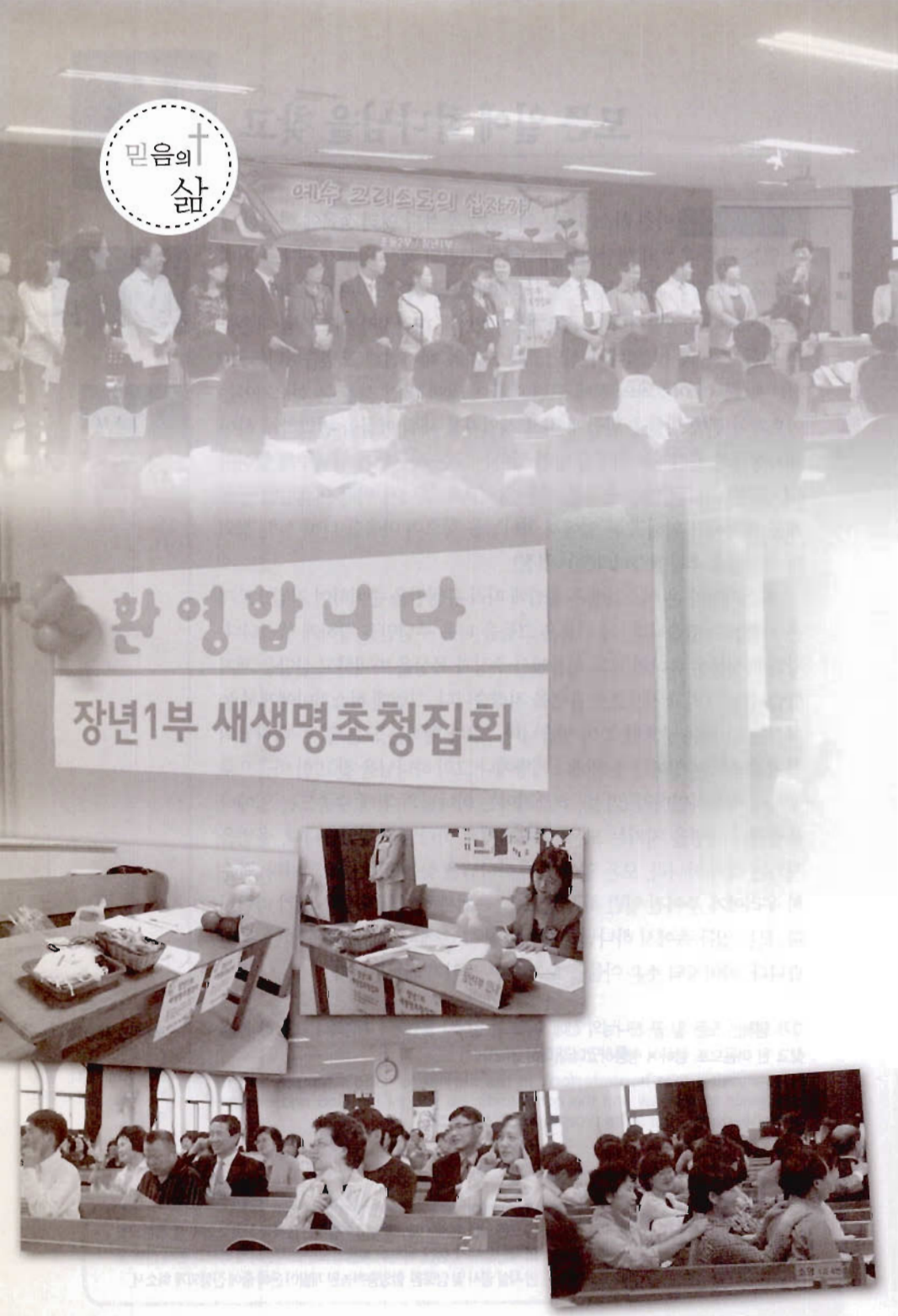
• 보살피는 자(13절) : 히브리어로는 '명령'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 '감독자' 또는 '지도자'라는 뜻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②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믿음의 삶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져 주시고

장년1부 새가족 교사가 새가족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 초청된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 속에 회개의 눈물이 범벅이다. 화장이 지워지고 눈물이 얼룩진 그 얼굴에 은혜의 기쁨이 가득하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수많은 전도지를 주며 "읽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네" 하고 읽기는커녕 바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서 "정말 할 일도 없네" 하던 때가 몇 번인가 한다. 좋은 직장에 잘 나가던 아들은 직장을 잃고, 말도 못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 여자 친구가 교회에 다니며 아들도 교회에 나갔다는 소리 듣고 예수 믿고 그렇게 되었다고 결혼 반대하며 싫어했는데 몇 달 후에 아들은 더 좋은 직장 얻었고, 그 여자 친구와 결혼 선언을 하며 결혼을 했다. 며느리는 착하고 마음이 예뻐 마음속으로 '세상에 착한 며느리구나' 하며 미안한 마음에 "너는 소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어머님, 교회에 나와 예수님 만나 믿으시면 합니다" 하기에 "그래. 좋아. 한번 나가보자" 한 것이 이렇게 즐거움의 연속이며 마음의 평온이라며 그렇게 해서 말씀이 있는 이곳 장년1부에 왔다고 하신다.

나는 나의 과거를 돌아본다. 등록하고 이십 년 가까이 봉사는커녕 주일도 마음대로 지내며 세상의 즐거움만 좇던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고 주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며 눈물 흘리던 그날. 주님은 날 사랑하사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며 암이 아닌 오진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다. 감사함을 잠깐 잊었음을 회개하며 은혜 받게 해 주신 시간이었다. '우리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져 주시고 주님 곁에 믿음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영순(교사, 장년1부)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4 주일

15 월요일 □ 역대하 32장

16 화요일 □ 역대하 33장

17 수요일 □ 역대하 34장

18 목요일 □ 역대하 35장

19 금요일 □ 역대하 36장

20 토요일 □ 마가복음 13장

2

값비싼 책을 태우며

Expensive Book Burning

| 초점 |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 찬송 |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본문 | 사도행전 19:17~20

17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 번째 전도여행에 나선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약 2년간을 머물렀습니다(행 19:8~10).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힘입어 엄청나게 부흥하였고,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짐으로 인해 불신자 유대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자 했습니다(행 19:13~14). 그러나 당시의 마술 이론들과는 달리 이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효험도 없었고, 오히려 이러한 악용은 역효과까지 낳았습니다.

※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행 19:15~17

예수님의 이름이 이처럼 높임 받았다는 사실이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의 많은 새 신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폭로했고, 심지어 그들의 마술 책까지 불태웠습니다. 어째서 이 사람들은 그처럼 비싼 책들을 불태운 것일까요?

말씀으路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믿음의 표현

책을 불태움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적인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행 19:18 _____

한때 마술에 빠져 있었던 이들은 이제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회심 이전에 자신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귀하고도 소중한 책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한때 이 책들을 신성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지침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점성가들과 무당들이 사용하던 이 책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베소의 신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인도자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 에베소의 새 신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_____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에베소의 새 신자들은 완전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빌 3:8 _____

_____

_____

공적인 선언

책을 불태움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증언했습니다.

행 19:19 _____

_____

이 새 신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책을 불태웠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이름에 구원과 기쁨,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사탄을 쫓아냈습니다. 마술은 단순히 사람들의 눈을 속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임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중 앞에서 자신들의 책을 불태움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들의 신앙을 간증하였습니다. 책을 태우며 솟아오른 불길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선언한 것입니다.

※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 적은 없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_____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축복을 원하지만 꾸짖음은 거절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빛이 밤새 타오르게 하는 대신 그 빛을 숨기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기를 거절하며, 교회에 등록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공적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치

책을 불태움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 가치를 나타냈습니다.

행 19:20 _____

그 책들의 가치를 환산하면 은 오만 정도입니다. 이것은 일반 노동자의 138년 정도의 월급에 맞먹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반면 유다는 약 3년간 예수님께 헌신했지만, 단돈 은 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마 26:15).

※ 나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인지 진지하게 생각한 뒤 나누어 보십시오.

_____

책을 불태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예수님이 첫째 되셨음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였던 것입니다.

※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보물)은 어떤 것입니까?

_____

마 6:24 _____

_____

_____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과거의 모든 불신자적인 삶을 버리고 진정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언제나 공식적으로 밝히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두는 가치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커야만 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하여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의 가사를 써 보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1절 _____

_____

2절 _____

_____

3절 _____

_____

후렴 _____

_____

| 믿음의 기도 |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땅에 전하게 하소서.
② 매 순간 깨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③ 충현교회의 5대 목표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설교노트

15 월요일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역대하 32장
찬송가 391장

묵상노트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은 앗수르 왕 산헤립의 침략을 받습니다(1~2절). 히스기야는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아 앗수르가 물을 얻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3~8절). 산헤립은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심하게 모독하며,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도와주지 못한다고 조롱합니다(9~15절). 그는 백성을 하나님과 히스기야에게서 갈라놓으려고 비방하는 말과 편지와 유다 언어까지 동원하는 회유책을 씁니다(16~19절). 절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앗수르 진영을 크게 멸하셨습니다(20~23절).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나 그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가 죽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24~33절).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를 비방하며 조롱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면서 신자를 단지 천국이라는 허상을 좇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산헤립은 지금까지 무너뜨린 나라들의 신이 그들의 나라를 지킬 수 없었듯이 하나님도 유다를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며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보입니다. 22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진짜이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세상을 보며 확신 가운데 사는 참 즐거운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앗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대하 32:22)

So the LORD saved Hezekiah and the people of Jerusalem from the hand of Sennacherib king of Assyria and from the hand of all others. He took care of them on every side.(2Chr. 32:22)

* 다윗 성의 밀로(5절) : 예루살렘 근처의 요새 가운데 하나로, 성 주위에 증축한 성채를 가리킨다.

기도제목

① 흔들리지 말고 더욱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의 조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가증한 일을 본받아

16 화요일

역대하 33장
찬송가 310장

묵상노트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므낫세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과 모든 이방신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1~5절). 또한 그는 점치는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고, 성전에 목상을 세웠으며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하도록 했습니다(6~9절). 하나님은 므낫세와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내어주셨고, 쇠사슬에 결박당하고 끌려가는 환난을 당하자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므낫세는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10~13절). 므낫세는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유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14~19절).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올라 이 년을 다스립니다(20~25절).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본받아 바알을 위해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우상과 산당을 무너뜨렸던 것을 알았을 것이고, 히스기야 또한 므낫세를 신앙으로 교육하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알았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게 들릴 수 있지만 은혜로 믿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대하 33:2)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following the detestable practices of the nations the LORD had driven out before the Israelites.(2Chr. 33:2)

• **어문(14절)** : '물고기 문'이란 뜻으로 갈릴리의 어부들이 잡은 생선을 팔기 위해 드나들던 문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성경을 배우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나를 깨뜨려서 온전한 믿음을 주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후임당회장이 청빙되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소서.

17 수요일

마음을 찢는 회개

역대하 34장
찬송가 539장

묵상노트

요시야는 8세에 왕위에 올라 16세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고 구했으며, 20세 되는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여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1~7절). 요시야는 왕위에 있은지 18년, 그의 나이 26세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 책을 발견합니다(8~16절). 서기관 사반이 율법 책을 읽을 때,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17~21절).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실 것을 알려주십니다(22~25절).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유순해져서 자신을 낮추며 은혜를 구합니다(26~28절).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모인 무리들에게 읽어 주자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을 다짐합니다(29~33절).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할 때 발견된 율법 책의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옷을 찢은 것은 율법 책으로 인해 유다의 죄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악을 보게 하는 것이 율법 책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임을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지키며 산 것이 아니라 전혀 율법 없이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회개의 법이며 마음을 찢는 법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케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의 의로움이 보인다면 아직도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죄인 됨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실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에게 가장 큰 은혜요, 기쁨입니다.

• **목도꾼(13절)** :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담당한 일꾼. 또는 잡역부를 말한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대하 34:19)
When the king heard the words of the Law, he tore his robes.(2Chr. 34:19)

기도제목

①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죄를 발견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어린 양을 잡으니라

18 목요일

역대하 35장
찬송가 265장

묵상노트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켜 행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도록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도록 지시합니다(1~6절). 요시야가 백성들을 위하여 유월절 제물을 주매 방백들도 자신들의 제물을 즐거이 내놓았습니다(7~9절).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양과 소를 잡고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했습니다(10~15절). 여호와를 섬길 모든 일이 다 준비되자 요시야의 명령에 따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16~19절).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애굽 왕을 제지하다가 므깃도 활에 맞아 중상을 입고 전사하게 됩니다(20~23절). 그가 죽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24~27절).

요시야는 율법 책을 발견한 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대하 34:31)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율법 책을 언약의 말씀이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유월절은 언약의 절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고, 나는 값없이 생명을 얻는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요시야는 율법 책에서 언약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총이 그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유월절을 언제 지킵니까? 말씀이 내려질 때마다 지켜야 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예배가 불가능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대하 35:1)

Josiah celebrated the Passover to the LORD in Jerusalem, and the Passover lamb was slaughtered on the fourteenth day of the first month.(2Chr. 35:1)

• 유월절 양을 잡으니(11절) : 참여한 자의 신앙 고백의 하나로, 그 제사를 드린 효과에 의지하고, 그러한 자세로 살겠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유월절 제사는 메시아적인 축제를 예표하는 것으로,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아니하고는 예배가 될 수 없음에도 예수를 잡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②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19 금요일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역대하 36장
찬송가 205장

묵상노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벌금을 내게 하고 그의 형제 엘리아김을 세워 유다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고쳐버립니다(1~4절).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책망했음에도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5~8절). 여호야김의 아들 야호야긴 또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불과 100일 동안 통치하면서도 온갖 악을 저질렀습니다(9~10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보내시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11~16절).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그들을 다 넘기셨으며 그들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17~23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유다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587년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까지 모두 가져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에게 내려진 새 생명, 새 피조물의 은총이 주어졌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16절) :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쳐서 돌이키게 할 구원의 가능성마저 전혀 없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뜻이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칠십 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대하 36:21)

The land enjoyed its sabbath rests; all the time of its desolation it rested, until the seventy years were completed in fulfillment of the word of the LORD spoken by Jeremiah.(2Chr. 36:21)

기도제목

①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새 생명의 은총을 누리며 새 피조물로 살게 하소서. ②2012년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6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20 토요일

마가복음 13장
찬송가 174장

묵상노트

예수께서는 세상 끝날의 징조들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유혹'(5절)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난리가 일어나고(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8절), 곳곳에 지진과 기근 같은 '재난의 시작'(8절)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개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는 일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십니다(9절).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임도 가르쳐주십니다(10절). 계속해서 예수님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대적하는 일(12절)과 모든 신자들이 미움을 받을 것(13절)임과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버젓이 드러나며(14절), 창조 이후 결코 보지 못했던 엄청난 환난이 일어날 것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19절). 게다가 이곳저곳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많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22절),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는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시며(24~25절), 예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선언하십니다(26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세상의 끝날이 가까울 때, 예수께서는 분명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심지어 주께서는 이 모든 사실이 단지 즉흥적이고 우연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시려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31절).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분명 진리이며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세의 징후가 점점 우리의 피부로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 깨어 있으라(33절) : 헬라어 '아그뤼프네이테'로서, '잠을 쫓아 버려라'는 뜻이다. 이는 육체적 잠뿐만 아니라 영적 잠도 쫓아내는 것을 내포한다.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막 13:26)
"At that time men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clouds with great power and glory.(Mk. 13:26)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 우리 주

(로마서 4:24)

1 **믿음** 믿음은 아주 대조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롬 4:13~14,23~24).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진리다(마 1:20~21). 믿음은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뉘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게 한다(눅 23:42).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에 영원한 통치가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한다(빌 2:6~11).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예수 우리 주"가 되셨다.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경건의 역사는 믿음의 분량만큼 일어난다.

2 **이 땅에 오심** "예수 우리 주"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인간이시다(롬 4:25). 예수님은 천사의 모양으로 태어나지 않으셨고, 또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천사들을 구속하지도 않으셨다(히 1:5~7,13~14). 우리와 같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골 3:1 ; 고전 6:19~20). 우리를 먹이시고,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요 10:14~15).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고전 3:10~11 ; 골 1:18).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몸과 피로 아주 낮게 임하셨어도,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다.

3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는 권한은 이 지구 상에 예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입법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법의 개념을 교회에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갈 1:7~8).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법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사 8:20). 말씀에서 떠나면 주님을 놓친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믿음 때문이다.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르침을 따른다면 "예수 우리 주"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가 될 수 있다(엡 2:20~22).

4 **성도의 교제**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부르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시 110:1).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 꼭 필요하다(요 20:13).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친근한 관계를 고백하고 있다(빌 3:8~9). "예수 우리 주"라는 이 타이틀은 이 땅을 떠난 선진들과 지금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믿음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 준다(엡 4:5).

나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마 28:18~20).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는 "예수 우리 주"를 마음속 깊이 경외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자(시 2:12 ; 고전 16:22). 아멘.

2012년 제2차 청지기훈련 메시지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1 주일

22 월요일 □ 마가복음 14장

23 화요일 □ 마가복음 15장

24 수요일 □ 마가복음 16장

25 목요일 □ 누가복음 1장

26 금요일 □ 누가복음 2장

27 토요일 □ 누가복음 3장

3

세상은 사탄을 어떻게 보는가

How The World Sees Satan

| 초점 |

믿음으로 사탄을 이긴다

| 찬송 |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 본문 | 에스겔 28:12~15

(12)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14)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사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탄을 추한 피조물로 생각하여, 뿔 난 머리와 뾰족한 꼬리를 가진 흉측한 붉은 용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사람들은 사탄이 지옥에 살면서 불 속에 석탄을 퍼넣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인상 때문에 우리는 원수의 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대상 21:1 _____

_____

※ 사탄의 이미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

_____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탄을 알아봄으로써 그의 존재와 능력으로부터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路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사탄의 성격은 완전무결하다

사탄의 성격은 그림 같이 완벽합니다.

겔 28:12 _____

_____

성경학자들은 에스겔 28:12의 묘사가 사탄의 초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부터의 말씀이 두로 왕에 대한 묘사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매우 지혜롭고도 완벽하게 아름답습니다. 사탄이 매우 사악한 자임을 감안하면 이는 놀라운 특성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죄가 가진 성격이 완전히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 사탄의 특징에 대하여 정리해 보십시오.

창 3:1 _____

욥 1:6 _____

마 4:6 _____

벧전 5:8 _____

사탄은 현재 이 세상의 왕입니다. 사탄이 조직한 세속적 시스템은 하나님을 무시함은 물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왜곡은 선한 일들을 곡해한다

사탄의 왜곡은 선한 일들을 곡해합니다.

겔 28:13~15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사탄의 왜곡에 대하여 정리해 보십시오.

창 3:4~5 _____

롬 1:22~23 _____

계 21:19~20 _____

요일 2:15~17 _____

사탄은 땅의 것들을 하늘의 것들처럼 만들려 애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음악도 왜곡시켜 음악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너무나 자주 인간의 재주, 죄, 그리고 사탄 자신을 찬양하게 합니다. 사탄의 왜곡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악의 부흥이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고 악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 14:12~15 / 너 아침의 아들 □□□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나라들을 약화시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덴에서의 사탄의 목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그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창 3:14~15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하나님이 가지신 한결같은 계획은 사탄을 영원히 불 속에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계 20:10). 우리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약 5:9 _____

_____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이니 절대로 그에게 속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없애려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는 어떻게 성경을 인용할지 알고 있으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혜와 아름다움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탄의 성격, 왜곡, 그리고 그 목적을 이해하여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 8:44 _____

_____

_____

_____

마 4:10 _____

_____

| 믿음의 기도 |

① 사탄의 궤계와 술수에, 오직 믿음으로 맞서게 하소서.
②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③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구역(팀)이 거듭나게 하소서.

설교노트

22 월요일 언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4장
찬송가 143장

묵상노트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당하시는 모습(1~11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모습(12~26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 체포되시어 침 뱉음을 당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수제자라 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버림을 당하시는 모습(27~72절)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언약의 희생제물로 점점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실은 제자들과 나누시는 마지막 만찬 속에서 더욱 깊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22,24절). 주께서는 친히 자신이 그들을 위한 '언약의 피와 떡' 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언약의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 이 세상의 참된 구원의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되었고, 이제 더 이상 죄의 값이 우리에게 매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언약의 산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만족시키셨고, 모든 허물에 대해서 '무름' 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의 정죄함과 죄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적 희생이 우리에 대한 생명의 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시작이고 완성이며, 기초이고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 **언약(24절)** : 헬라어 '디아데케' 로서, 히브리어 '베리트' 를 번역한 말이다. 본래 이 단어는 '유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둘 사이에 어떤 약속을 세우다' 는 의미를 가진다. 결국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적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약속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초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체결되고 성취된 약속을 가리킨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막 14:24)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he said to them.(Mk. 14:24)

기도제목

① 성령의 생명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참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10월 25일~27일)와 청지기훈련(10월 26일)에 온 성도들은 기도로, 앞장선 일꾼들은 십자가를 붙들며 섬기게 하소서.

기도노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23 화요일

마가복음 15장
찬송가 144장

묵상노트

빌라도는 자신의 뜻과는 달리 군중심리에 의한 정치적 계산에 따라 예수를 십자가 형벌에 처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그 개인에게는 약간의 책임회피의 구실이 되기도 하나,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의 무거운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십자가 형벌은 그가 내린 법적 결정이기 때문입니다(1~15절). 예수께서는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십니다(16~20절).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21~32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너무나도 무력하게,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약하고 약한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모습은 단지 마지막 한마디에서만 강함을 보일 뿐, 시종일관 침묵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그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나 그마저도 하늘은 외면한 채, 그분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참된 영적 회복을 위해 그분은 그렇게 기꺼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바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요 13:1). 이것이 곧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입어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없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분의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이미 입은 자이고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십자가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증하고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막 15:15)

Wanting to satisfy the crowd, Pilate released Barabbas to them. He had Jesus flogged, and handed him over to be crucified.(Mk.15:15)

• **몰약을 탄 포도주(23절)** : 랍비 전통에 따르면 어떤 예루살렘 여인들은 십자가 형을 받는 죄인에게 마취제를 주어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몰약은 식물의 수액으로서 어느 정도의 마취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셨다(23절).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케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10월 25일~27일)와 청지기훈련(10월 26일)의 모든 일정을 성령께서 세밀하게 이끄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가득하게 하소서.

24 수요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6장
찬송가 160장

묵상노트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과 영광도 가리킵니다. 이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신약 학자들은 사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마가복음을 꼽습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것도 짧은 것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내용만을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마지막 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증거, 그리고 승천과 재위를 보다 분명하게, 보다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성경은 그 자체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6절).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14절). 나아가 그분의 승천과 재위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19절).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동시에 현실에 대한 위로가 되며, 또한 아직 겪지 않은 앞으로의 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는 신자가 가장 불쌍한 자(고전 15:19)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앙 생활의 밑바탕이며 동시에 근본이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의 부활처럼,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혀질 것이며 더 이상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부활체로서 재창조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고전 15:53~54).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막 16:19)
After the Lord Jesus had spoken to them, he was taken up into heaven and he sat at the right hand of God.(Mk. 16:19)

• **두 사람(12절)** : 누가복음에 의하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고, 이들의 행선지는 엠마오였다(눅 24:13~19).

기도제목

① 마지막 날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임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찬송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25 목요일

누가복음 1장
찬송가 89장

묵상노트

누가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과 노래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찬송이 등장합니다(46~55절).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 놀라운 큰일을 행하신 거룩한 이를 찬송하고 있습니다(49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자손과 함께 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55절). 또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노래도 나타나 있습니다(68~79절). 그는 거룩한 언약에 따라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지시하고 준비하는 선지자로서 세워짐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데오빌로에게 더욱 확실히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2~3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더욱 깊이 알리고자 보다 자세히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는 데오빌로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며 우리를 위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더욱 깊이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소개할 때, 찬송과 영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이해와 앎을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 앞에 우리의 전 존재가 온전히 항복하고 그의 이름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한 고백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눅 1:68)
"Praise be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because he has come and has redeemed his people.(Lk. 1:68)

• 데오빌로(3절) :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이며, 로마 황제의 친족이었거나 고위 공직자로서 실재했던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10월 25일~27일)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소서.

26 금요일

영광과 평화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찬송가 610장

묵상노트

한 아기가 우리의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의 오심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은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14절).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평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며(빌 2:6 ; 히 1:3),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십니다(요 1:18).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의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앞선 1장에서 마리아와 사가랴의 찬송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2장에서도 목자들과 천사들의 노래(13~20절), 그리고 시므온의 찬송(29~32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 하나님과의 화해, 영원한 생명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성육신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 정결예식(22절) : 구약 율법에 의하면 산모가 남아를 낳았을 경우는 33일간 부정하고, 여아를 낳았을 경우는 66일간 부정하다고 간주함(레 12:1~5).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면 어린 양 한 마리, 가난할 경우에는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산비둘기 둘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었다. 본문은 이 예식을 가리키고 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 2:14)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Lk. 2:14)

기도제목

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더욱 깊이 자라게 하소서. ② 2012년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6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27
토요일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21~22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의 세례 받음은 인류의 죄를 전가 받으시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구속주로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인류의 죄과를 전가 받으신 것입니다(고후 5:21). 그는 의인이시고 죄가 없으시므로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었지만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를 죄인들과 일치시키셨습니다(마 3:13~16). 그러므로 요한은 이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요 1:29,36). 예수께서 자기를 죄인과 일치시키심은 곧 죄과를 전가 받는 계기였고(히 9:26 ; 롬 6:10), 인류의 죄를 책임지고 속량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죄의 전가 받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심이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그 전가 받으신 죄과 때문에 저주 받은 자로 십자가 상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신 21:23 ; 갈 3:13 ; 행 5:30, 10:39).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곧 우리에 대한 생명이요, 그분의 희생은 곧 우리에 대한 영생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생명도, 영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일 뿐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참된 영생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누가복음 3장
찬송가 198장

묵상노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눅 3:22)

and the Holy Spirit descended on him in bodily form like a dove.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well pleased."(Lk. 3:22)

• 죄 사함(3절) : 헬라어 '아페신'으로 '해방', '탕감'이란 뜻이다. 회개를 통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킨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매 순간 십자가의 진리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십자가 목회 컨퍼런스(10월 25일~27일)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믿음의 삶

종교개혁주일이 뭐예요?

Q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A 종교개혁이란,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은 성당과 교회가 둘 다 있지만,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지금의 교회라는 것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당뿐이었지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복음공동체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인 건 잘 알고 있지요?

Q 네. 성경에서 읽었는데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A 만민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열린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이끌어가던 교황과 신부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고 성경을 본래와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성경도 아무나 읽지 못하도록 당시 상류층만 사용하던 어려운 언어인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읽었어요. 그리고 '면죄부'를 만들어 팔았는데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기만 해도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조상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해 준다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Q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돈을 주고 구원을 살 수 있어요?

A 하지만 당시 일반 평민들은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만큼 교회라는 곳이 교황과 신부들에 의해 특별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라틴어를 모르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무슨 말들이 오고가는지,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루터'라는 한 수도사이자 신학교수가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95가지로 정리해서 비텐베르크의 교회 정문에 붙이면서 큰 뉴스거리가 되었고, 이 사건은 한 교회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유럽 곳곳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루터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누구나 참여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루어진 예배,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된 성경책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전에는 참석하지 못했던 성찬식도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허용되었어요.

Q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와 교회의 모습이 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니 놀랍네요. 전에는 너무 당연하게만 느껴져서 소중한 줄 몰랐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져요.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겠어요!**

A 우리가 성경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고,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성찬식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해야겠지요?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8 주일

29 월요일 □ 누가복음 4장

30 화요일 □ 누가복음 5장

31 수요일 □ 누가복음 6장

1 목요일 □ 누가복음 7장

2 금요일 □ 누가복음 8장

3 토요일 □ 누가복음 9장

4

앞으로 나아가라

Go Forward

| 초점 |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다

| 찬송 |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 본문 | 출애굽기 14:10~16

10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은 출애굽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사건을 경험했으나,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듯 곧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곤경이 닥칠 조짐이 보이자마자 그들은 두려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출 14:10~12).

※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결론도 불완전했습니다. 통솔력 있는 그의 이러한 지시는 마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말처럼 영적으로 진실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출 14:13~14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지시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출 14:15)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의 路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왜 나아가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출 13:17 _____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진실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울부짖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행진 명령

교회에 내려진 행진 명령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막 16:15~18 _____

마 28:19 _____

예수님은 우리가 모퉁이에 숨는 대신 주님의 빛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마 5:14~16). 이 '전진하는' 영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겁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는 정지 신호와 출발 신호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정지하지 말고 나아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전진해야 하는 이유

교회의 전진은 하나님이 주신 엄명입니다.

눅 11:52 _____

_____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듯 바리새인들은 천국과 선악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이 지식의 열쇠를 얻을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과 선생들에게는 이 열쇠가 없으며, 이는 결국 열쇠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 만약 홍해 앞에서 주저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실망할 때마다 멈추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_____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시련이 다가올 때 전진을 멈추며, 결과적으로 결코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전투에서도 후퇴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전진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끈들을 모두 끊어 버려야 합니다.

눅 9:62 _____

_____

눅 5:4 _____

_____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직 전진만을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놀라운 승리가 있다

전진하지 않으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출 14:15~16 _____

_____

_____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이며, 그들의 원수들은 멸망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는 일종의 악마를 나타내며,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삼킬'이란 말은 홍해가 애굽 추격군을 삼켰던 것과 또한 사탄이 우리의 신앙고백을 삼키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 26:38 _____

_____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단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만큼이나 강력하다고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오직 전진할 때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으며, 이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전진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롬 12:19 _____

_____

_____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짊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모든 인간은 이 땅을 거쳐 가야 하며, 여기에는 오로지 두 종류의 길, 즉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과 천국으로 이끄는 좁은 길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에는 정지 신호가 없습니다! 좁은 길에는 여행자들을 향한 전진 신호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벧전 2:11 _____

_____

마 7:13 _____

_____

| 믿음의 기도 |

① 오직 믿음으로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어린 양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③ 충현교회가 복음 위에 서서,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설교노트

※ 〈충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29 월요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4장
찬송가 151장

묵상노트

요단 강변에서 이루어진 세례식에서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로 선언되십니다(마 3:16~17 ; 막 1:10~11 ; 눅 3:21~22). 이것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인류의 '왕'이 되심을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목을 받았습니다(대상 28:6 ; 삼하 7:14).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아가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성취시키신 것입니다(딤전 2:6 ; 딛 2:14 ; 갈 3:13 ; 벧전 1:18~21 ; 계 1:5~6, 5:9~10, 14:3~4).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 곧 속량함을 얻은 자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왕이시기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의 예표적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의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31~37절).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회복시키십니다(38~39절). 또한 온갖 병자들과 귀신들린 자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40~41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치유 이적'에 초점이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43절).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1~13절),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으나(24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영광의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 **주의 은혜의 해(19절)** : 레위기 25:8~17에 나오는 '희년', 곧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죄와 그 결과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눅 4:43)

But he said, "I must preach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to the other towns also, because that is why I was sent."(Lk. 4:43)

기도제목

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30
화요일

누가복음 5장
찬송가 531장

묵상노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1~11절).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대중들을 위한 가르침이기보다 소수의 제자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하시고, 불특정 다수에게 천국복음을 선포하셨으나, 그분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분을 따랐던 자들은 몇몇의 초라한 자들뿐이었습니다. 그는 열두 명의 제자들만을 이끄셨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소명을 주셨습니다(10절). 예수께서는 언제나 자신이 세운 이 열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막 3:14). 그러나 당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살피면, 연약하고 초라한 죄인들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27~32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32절)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곧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이라 착각하는 자는 결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인만이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는 결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죄인으로서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5절)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의 순종이 당신에게도 있습니까? 혹 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 결심과 노력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제자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주의 참된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 5:32)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Lk. 5:32)

• 율법교사(17절) :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설하며,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학식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이 상실된 이들의 형식화되고 습관화된 종교적 행태를 비판하셨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31 수요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6장
찬송가 280장

묵상노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거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곧 화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20절).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천국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그 자체가 복된 자인데, 그 이유는 천국의 상급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은 심령의 가난함(마 5:3)을 의미하며, 나 자신의 죄인 됨을 통회하며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찬송가 280장에 나타난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를 고백하는 믿음의 회개를 뜻합니다. 21절의 '주린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주를 향한 영적 갈급함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복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이야기할 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말하곤 합니다. 기독교가 주는 복도 이런 개념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고 참된 복이며 영원한 복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자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없는 삶은 화이며 열매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43~44절).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27절). 이 계명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관계를 맺은 자에게 이것은 지켜야 할 계명이기 이전에 지키라고 주신 복된 특권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 **티, 들보(41절)** : 티는 톱밥 부스러기 같은 것이고, 들보는 기둥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티와 들보는 크기에 있어서 결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목수로서의 직업적 경험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눅 6:20)

Looking at his disciples, he said: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for yours is the kingdom of God.(Lk. 6:20)

기도제목

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걷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제44대 장로 피택자 주제 발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기적

엘리야를 통한 기적

엘리야는 예수님 탄생 전 9세기경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로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일깨우면서 바알 신을 타파한 선지자였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는 몸에 털이 많았으며 길르앗 지방의 디셉 마을 사람이었다. 그는 불 말과 불 수레를 타고 승천하였다.

❶ **가뭄을 선포하다(왕상 17:1)**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❷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시다(왕상 17:2~7)** 엘리야는 숨어 지내며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 받았다.

❸ **사르밧 과부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다(왕상 17:8~16)**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대접함으로 먹을 양식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❹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다(왕상 17:17~24)**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었을 때에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살아났다.

❺ **갈멜 산에서 불로 응답을 받다(왕상 18:19~40)**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였다.

❻ **큰 비로 응답을 받다(왕상 18:41~45)**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쏟아지는 장대비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3년간의 가뭄도 끝났다.

❼ **오십부장과 군대를 불로 태우다(왕하 1:1~16)** 엘리야를 잡으러 온 군인들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죽게 되었다.

❽ **겉옷으로 요단 강을 가르다(왕하 2:1~14)**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자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이후 엘리야는 승천했다.

엘리사를 통한 기적

엘리사는 BC 9세기경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아벨므홀라 출신으로 본래 농부였다. 밭을 갈던 중에 엘리야를 만나 기름부음을 받았다.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후, 그의 뒤를 이어서 5대 왕인 여호람 때부터 8대 왕인 요아스 때까지 약 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❶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 강을 가르다(왕하 2:13~14)**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물을 치자 요단 강 물이 갈라졌다.

❷ **소금으로 여리고의 물을 정화시키다(왕하 2:19~22)** 엘리사는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려 물을 깨끗케 하여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❸ **대머리라 조롱하던 아이들을 처벌하다(왕하 2:23~24)** 자신을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갑자기 곰이 나와 아이들을 죽였다.

❹ **마른 골짜기를 물로 채우다(왕하 3:1~20)** 모압을 치러 에돔 광야로 가는 도중 물이 떨어지자 마른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웠다.

❺ **과부의 기름 그릇을 가득 채우다(왕하 4:1~7)** 선지자학교의 가난한 미망인의 집의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

❻ **불임의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하다(왕하 4:8~37)** 아이를 낳지 못하던 수넴 여인이 임신하였고, 또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 살려 주었다.

❼ **국 속의 독을 해독시키다(왕하 4:38~41)** 독으로 인해 국을 먹지 못하게 되자 엘리사가 가루를 넣고 독을 없앴다.

❽ **보리떡 이십 개와 자루의 채소로 1백 명을 먹이다(왕하 4:42~44)**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백 명이 먹었다.

제44대 장로 피택자 주제 발표

❾ **나아만의 나병이 고침 받다(왕하 5:1~27)**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요단 강 물에 일곱 번 씻으라는 말에 순종한 후에 고침을 받았다.

❿ **요단 강에 빠진 쇠도끼가 떠오르다(왕하 6:1~7)** 집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⓫ **하늘의 군대를 보다(왕하 6:14~23)** 사환의 눈을 열어서 수많은 불 말과 불 병거를 보게 했으며,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사마리아로 끌고 와서 다시 보게 해 주었다.

⓬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을 해결하다(왕하 6:24~7:20)**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였고, 이에 아람 군대는 모든 것을 두고 도망쳤다.

⓭ **죽은 시체가 살아나다(왕하 13:14~21)**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기적을 통한 메시지

우리의 머리 속에는 갈멜 산에서 불을 내려 바알 선지자와 850대 1의 전쟁을 극적으로 승리하고, 죽지 않고 불 수레와 불 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위대한 엘리야의 모습이 가득 채워져 있다. 신약에서도 4복음서의 기자들, 바울, 야고보가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다. 어쩌면 엘리야의 능력이 선지자 중에 최고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신 기적 이면에는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다.

엘리야의 시작은 한마디로 놀라웠다. 온 이스라엘이 엘리야가 무서워 벌벌 떨었다. 엘리야는 자신을 믿고 자기 실력을 과시하였다. 가뭄을 선포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고, 갈멜 산의 대결에서 승리하였으며 큰 비까지 내리는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사의 시작은 보잘것없었다. 엘리사는 오랫동안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녔지만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 스승에게 갑

절의 능력을 달라며 따라다니다가 스승이 승천하는 모습을 쳐다보며 무기력하게 "엘리야의 하나님이여!"라고 외칠 뿐이었다.

엘리사의 기적에 갑절의 능력이 나타났던 증거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었다. 엘리사가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은 죄악의 도시였던 여리고 성의 물의 근원을 고치고, 과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기적이었다. 지금도 여리고 샘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고 있다. 그리고 보리떡 20개로, 엘리사를 찾아온 가난하고 굶주린 100명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다 배불리 먹게 하였다. 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은 복음전파의 역사로 이어졌다. 엘리사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 주었다. 나아만은 믿음 없는 이방인이었다. 그는 나병을 치료받은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 자신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전했을 것이다. 또한, 아람의 특공대가 엘리사를 죽이러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을 뿐, 그들을 다시 살려 주셨다. 고국에 돌아간 군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기적을 살펴볼 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와 엘리사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다(딤전 1:15). 하나님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죄인을 불러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은 전적으로 은총이다. 엘리야는 자신을 믿고 자기를 과시하다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일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셨다. 엘리사는 성질이 급하고 욕심이 많고 실수도 있었다. 그러나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다. 이것이 기적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메시지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피택받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불러 주셨듯이 주님이 우리들을 불러 주셨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제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기적, 복음전파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는다(행 1:8).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2년 10월
Copyright© 2012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박만복 문성수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